

석사학위작품

畫境

기억 속 이미지 林泉高致란?

PICTURESQUE

2020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학 과

동양화와 진채화전공

김 다 예

석사학위작품
지도교수 김선태

畫境
기억 속 이미지 林泉高致란?
PICTURESQUE

2020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학 과
동양화와 진채화전공

김 다 예

석사학위작품
지도교수 김선태

畫境
기억 속 이미지 林泉高致란?
PICTURESQUE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학 과
동양화와 진채화전공

김 다 예

김다예의 미술학 석사학위 작품을 인준함

2020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画境

PICTURESQUE

김다예 眞彩畵

KIM DA YEA

Jinchahwa

Solo Exhibition

2020.05.27- 06.01

인사동 gallery *is*
갤러리 이즈

화경 畵境 : 그림이 펼쳐져 있는 듯한 아름다운 낙원(樂園)

기억 속 이미지 林泉高致란?

모든 이가 처해 있는 삶, 숨 가쁘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실을 두발 걸어서 또는 비행기와 배로 어딘가로 훌쩍 떠나길 바라는, 자신이 염원하는 세속이 존재하지 않는 '임천고치'에 대한 그리움은 모든 이가 마음 속 어딘가에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무언가를 억제하고 누르는 세상을 나와 자기 자신이 희망하던 이상향을 자유롭게 거느리며 그 동안 느끼지 못했던 내면의 감정을 찬찬히 느끼고 읽어보며 삶에 얽혀져서 자기자신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어둡고 탁한 부정을 잊고 맑아진 마음을 느끼고 다시 돌아가길 염원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임천고치 거닐 때마다 보이는 크고 작은 모습들은 삶이 굴곡이 있듯이 오래되어서 낡고, 새로 단장하여 번듯한 이미지가 공존한다. 언덕을 오르다가 어느 순간 평지를 만나고, 평지를 걷다가 내리막을 만나듯이 마을을 이어주는 길을 걷다 보면 안개처럼 희미하기도 혹은 비가 내리다 개어 화창한 날의 또렷한 이미지로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나의 기억 속 이미지, 임천고치 또한 어떠한 화면 공간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시점에서 표현된 것처럼 평면의 한정된 화면을 깊이 있고 무한한 공간을 담아보았다. 높이를 알 수 없는 무한한 물체가 존재하기도, 하늘에서 바라보는 듯한 원히 보이게 표현되기도, 끝없이 존재하는 형체를 길게 그리다가 자르기도 하면서 뒤의 형체가 더 진하게 보인다. 이러한 자유로운 표현이 나의 임천고치와 어울린다.

임천고치 표현방법에서는 한지, 석재의 재료가 적합하여 어울린다고 생각하였다. 오래되어서 낡고 새롭게 단장하여 번듯한 사이를 거닐다 보면 따뜻하면서 거칠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면서 부드러운 이미지가 연상되고, 이것은 마치 따뜻하고 부드러운 석재, 한지의 성질과 닮았다고 느껴졌다. 임천고치에 물들이 있는 다채로운 석재의 모습은 그 길을 걸으면서 느꼈던 마을의 색상을 대변해주듯이 꽃으로 물든, 햇빛이 공존하는, 여유가 남아있는 이미지를 한지 위에 다양하게 담아보았다. 오돌토돌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각기 다른 색상의 돌가루로 다양하게 비쳐지는 이미지의 특징을 잘 담아 임천고치의 여유로움으로 채워 나갔다.



곽희, '조춘도(早春圖)', 108.1×158.3cm, 1072년

곽희『임천고치』산과 샘을 거닐며 탁한 기운을 정화하며 맑게 하는 그런 이상향
북송시대 사대부들에게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사회적 관직을 지키며 어버이에 대한 효심으로 책임을 다하는 세속공간'의 족쇄에 벗어나 편하게 머무르면서 정신을 맑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임(林)과 천(泉)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임천고치가 추구되었다. 임천고치는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 '임천의 마음'을 표현했다.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산수 또는 한번쯤 그곳에 살아보고 싶은 산수를 그렸을 때는 임천에 대한 갈망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곽희는 임천을 그릴 때에는 계절마다 아침, 저녁에 변화하는 순간의 여러 각도를 따라서 반드시 자세하고 치밀하게 관찰해서 나타내야 다양한 모습, 독특한 특징을 띄고 있는 자연의 마음을 한 폭의 종이에 나타냈다.

세속공간에서 벗어나 자연을 거닐거나 자유롭게 은거하는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삶과 얽혀졌던 힘들고 어두웠던 부분을 잊고 깨끗해진 정신을 느낄 수 있다. 산수는 역사가 존재하는 공간이기도 하여 옛 인물이 거닐고 머물렀던, 인간이 살아가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이상향이기도 하다. 자연은 벼슬, 권력, 재물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세속으로부터의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은 세상에 휘둘러지지 않고 조화롭게 해준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욕망에서 벗어나 마음의 성찰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된다. 자연에 거주하면서 그곳과 친구가 되어서 자연을 직접 느껴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심성을 깨끗하게 하여 그곳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인간의 수양의 수단인 것이다.

곽희의 조춘도(早春圖)는 다양한 시점에서 그 공간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삼원법이 활용되었다. 고원(高遠)은 아래에서 바라보는 아찔한 높이감이 존재하기도 '심원(深遠)'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바라보듯이 끝이 안보일 것 같은 깊이감이 표현되기도 '평원(平遠)'은 앞이 있는 물체부터 저 뒤편까지 폭 있는 듯 하다. 다채로운 시점에서 표출된 산수는 임(林)과 천(泉)이 존재해서 자신

원하는 이상향을 보는 듯한 느낌을 들게끔 해준다. 만물이라는 존재가 워낙 크고 가지각색의 모습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시점에 따라 폭 이어지게 표현되며 가까이에서 보게 된다면 만물의 운치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시점에서 표현된 이미지는 가지각색의 본연의 모양새를 느낄 수 있다. 여백과 가지각색으로 그려진 본연의 이미지가 같이 공존함으로써 친귀하고 기묘함을 느끼게 된다.

○ 참고문헌

김재숙 『삼원법에 나타난 산수공간의 미학적 의미』 정부(교육과학기술부) 2011

지순임 『중국화론으로 본 화화미학』 미술문화 2005

최선미 『郭熙의 山水畵 研究』 군사대학교 대학원 2004

장원석 『성리학의 산수화의 발전 관한 연구』 정부(교육과학기술부) 2008

김한배 『동양그림의 경관관이 작정원리에 미친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2008

장문영 『郭熙 山水畵觀의 構造形成에 對한 研究』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권현희 『안건의 문유도원도의 양식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4

What is an image in a memory(林泉高致)?

In this busy and fast-changing world, everyone has a deep-seated wish to just walk away and get themselves in an airplane or a boat to travel to somewhere else - somewhere that is further away from the secular reality, in other words, Limcheongochi (林泉高致). This painting contains the wish to get out of the mist of negativity that wears oneself out and to go back and feel the clear and sound mind by reflecting on the inner emotions that have been neglected, breaking out from the oppressive world to the ideas that one has been long pursued.

These ideal places contain ups and downs of lives, big and small. They are also a mixture of old and rundown and neat and clean. As I climb up, I end up in the plains at some point. I walk on the plain field and I encounter downhill at another point. Some of the memories I have on walking down these paths that connect villages to villages, some are as clear as the sky after rain, but others are as vague as the days of the mist.

The image in my memory, Limcheongochi, is also expressed without any limits free from any spatial restriction. The attempt is to express the depth and infinite space on the two-dimensional space. Some objects are in infinite height, and others are expressed as if they were looked upon from the sky above. A long, seemingly lengthy object is cut abruptly to reveal another object behind. Allowing such freedom in my expression suits my Limcheongochi.

In terms of methodology, I thought of the Korean traditional paper and stone color powder suit for this artwork. Strolling the streets that are something in between old and rundown and neat and new, you will feel something warm yet rough, heavy but gentle; this reminded me of the traditional Korean paper and stone color powder which have warm and gentle characteristics. The colorful figures of colored by stone powder in Limcheongochi represent the colors of the village in which I walked. I tried to fill the traditional Korean paper with the sunlit, leisurely, and peaceful images. I filled Limcheongochi with a leisurely feeling characterized by a variety of stone power colors that provide a gentle impression with uneven texture on the surface.



Guo Xi, 'Early Spring', 108.1 × 158.3cm, 1072

Limcheongochi by Guo Xu, an ideal place where purification happens in mountains and rivers

Limcheon-gochi was sought to overcome the feeling of longing for the forest (Lim, 林) and river (Chun, 泉), which could calm the mind while staying away from the secular world where shackles of forced obligations of social responsibility of loyalty to the king and filial responsibility to parents. Limcheongochi is not an imitation of nature but the mindset of Lim and Chun. You could relieve your craving for Lim and Chun when you paint mountains and rivers you want to be in. Therefore, Guo Xu expressed a wide range of appearances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essence of nature on a piece of paper, which must be observed carefully in terms of different angles in different moments that change daily in the morning and evening in each season.

By escaping from the secular world and spending time in nature, you will have to be able to experience your negative and dark parts of your life lifted and cleared. Natural landscapes contain history; it is a place where historic figures lived. As the space is deeply associated with human living, it is also an ideal world. Nature is not shaken from the world because it is far from wealth, power, and fame. Such a mindset creates balance rather than being caught up in the world. It makes you go back to your own nature with reflection getting out of desires. It is a means of discipline to live in nature, befriend it, feel it firsthand, and cleanse the mind to go back to the original human nature.

Guo Xi used atmospheric perspective to make it feel as someone is in that space at various points of perspective in Early Spring (早春圖). High distance (高遠) is a perspective from the bottom to look high up as if it would never end, deep distance (深遠) is from the top to look down in limitless depth, and level distance (平遠) is from the front to the far behind. The landscape painting expressed at various points of view makes it feel as if you are at the presence of ideal Lim and Chun. This is because the myriad of objects exist in the world and this technique allows one to put various perspectives aligned with each other. Just looking closely would pose a risk to miss the real atmosphere of these objects. The image expressed at different points in time can provide a chance to feel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coexistence of an image drawn in different perspectives creates harmony with margins, which leads one to have the unique and authentic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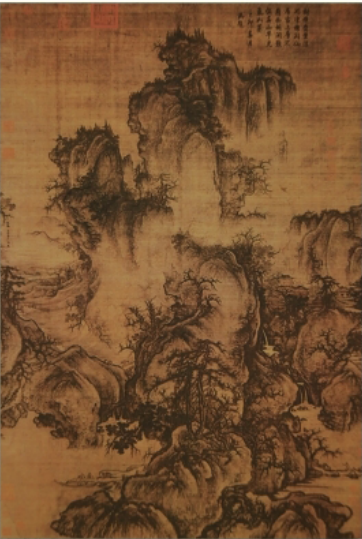
记忆中的形象林泉高致是?

很多人都希望逃离现在所处的生活环境和让人窒息的艰难现实, 不管是徒步、坐飞机或坐船, 心灵深处总会盼望着离开世俗寻找自己的“林泉高致”。林泉高致反映了人们对离开压抑的生活环境, 游走于自己向往的世外桃源, 在其中感受未曾体会过的内心情感、忘掉深陷于生活的泥潭而让人疲倦的阴暗的负面情绪, 重新找回安宁和清静期盼。

漫步于林泉高致时看到的参差不齐的形状, 如同人生的起伏, 因时间而老化的和因装扮而变得更华丽的形象共存。就像爬上山坡到达平地, 平地末端出现下坡一样, 走在连接村落的小路, 能感觉到雾气般的朦胧和雨后晴天的清新, 这种印象一直留在我的记忆中。

我记忆中的林泉高致不受任何画面空间的限制, 表达了视觉角度的自由, 在有限的画面中展现出有深度的无限空间。不仅包含高不可测的物体和从天上俯瞰的场景描述、还表现出无限长的形体突然折断、使得后面的形体颜色显得更加浓厚的效果。这种自由的表现手法适合于我的林泉高致。

我认为韩纸, 石彩材料适合呈现真实的林泉高致。漫步于因时间而老化的和因装扮而变得更加华丽的形象之间, 会联想到温暖而粗糙、沉重而温柔的情景, 这也符合石彩、韩纸的特点。林泉高致上的各种石彩代表着走在上面时能感受到的村庄的颜色, 而且在韩纸上用各种手法表现了沉浸在花色、与阳光共存的闲情逸致。利用粗糙不平而柔和的石粉颜色从多角度表达了各种形象特点, 充盈着林泉高致的悠闲自在。



郭熙, '早春圖', 108.1 × 158.3cm, 1072

游走于郭熙『林泉高致』的山和泉水, 净化浑浊气息的世外桃源

北宋时期权贵们也是为了摆脱“忠诚于皇帝、坚守社会官职并以孝父之心尽责的世俗空间”束缚, 追求净化身心且可以满足对林和泉之期盼的林泉高致。林泉高致展现的不是“对自然的模仿”, 而是“林泉之心”。当画出悠闲的山水或令人向往的山水时, 可以缓解对林泉的渴望。因此, 郭熙在画林泉时从多个角度更加细致地观察季节和早晚变化, 将丰富的自然景象、独有的特点展现在这幅画中。

摆脱世俗空间游走于自然或隐居于自然, 可以忘掉生活的艰难和阴暗, 感受清静。山水也是历史存在的空间, 古人曾经在此漫步和停留, 因此是与人类的生活关系紧密的有价值的世外桃源。大自然与官职、权利、财物之间存在一定的距离, 因此不会因世俗之事动摇, 能找到心理的和谐。在这里可以卸下自身的欲望, 以忏悔之心反省自己并找回初心。停留在大自然与之成为朋友, 感受大自然并与自然合为一体净化人的本性, 这是很好的修身养性的方式。

郭熙的早春图运用了三元法并通过多个视觉角度营造出身临其境的氛围。“高远”存在着从下往上仰望的眩晕的高度, “深远”表现出从高处向下俯视时一望无际的深度, “平远”展现出从前往后延续着的物体。从多彩的视觉角度显露出的山水使人感觉通过林和泉的协调中欣赏着自己期盼已久的世外桃源。万物的存在本来就范围广、形形色色, 因此会从不同角度延伸, 在近处看反而会丢失万物的韵味。从不同视角表现的形象中可以感受各色各样事物本来的面貌。空白和各种原始形象的共存, 给人一种珍贵而奇妙的感觉。

画境

PICTURESQUE





그리스 속 또 다른 한옥 | 종이, 석채, 콜라주 | 53 x 65 cm | 2019
Hanok in Greece | paper, pigment, collage | 53 x 65 cm | 2019

2017년 8월, 아테네에서 아침부터 큰 배에 몸을 싣고 마주했던
흰색 건물 그리스, 산토리니

푸른 하늘, 높은 곳에 위치한 산토리니섬
흰색건물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파란색이 멋스럽게 존재한다.
그 모습은 보기만해도 상쾌해지는 느낌이 드는 듯한, 산 위에
아찔한 곳에 존재하는 절과 많이 닮아 보인다.
절에 도달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정신도 맑아진다.

August 2017, Santorini in Greece, white buildings
I encountered on a boat in the early morning

The blue sky seemed to be playing hide and seek in the
forest of white buildings in Santorini island
Refreshing to the eye,
it felt like a temple at the top of an island, which
usually is located in the mountains.
If you reach there in the midst of mountains, your mind
becomes calm and clear.



물들어 가는 산토리니 | 종이, 석재, 골라주 | 117 x 91cm | 2019
 Sunset in Santorini | paper, pigment, collage | 117 x 91cm | 2019

붉게 물드는 아이마울의 일몰
 환한 불빛과 어울려서 낮의 풍경 못지 않은 아름다움을 안겨준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듯, 일몰을 기다리는 것은 흥미롭지만 한편으로는 지루하다.
 해는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고
 조금씩 떨어지는 해는 하늘을 붉은색, 하늘색, 황금색, 보라색으로 물들어 가고
 산토리니의 흰색 이미지도 다른 색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해가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정말 순식간이어서
 그 순간의 매력적인 석양의 붉은 기운이 매력되어
 아름다운 그 자리를 쉽게 뜨지 못하는 모습이 남아있다

Oia Village at sunset.
 The beauty at sunset under the bright light is as beautiful as the village during the daytime. Waiting for the sunset is joyful to wrap up your day, but it could be tedious at the same time. The sun didn't set completely. It colored the sky with red, light blue, gold, and purple little by little, which also colored the white buildings in Santorini in different colors. The moment of sunset is instantaneous, I was captivated by the enchanting red sunset at the moment. I couldn't leave the spot easily.



하얀 건물 그리고 초록 | 흙, 석재, 골라주 | 80 x 100 cm | 2018
 White buildings and green | clay, pigment, collage | 80 x 100 cm | 2018

하얀 건물, 그 형체에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듯이
 백색 사이로 보이는 길쭉길쭉한 나무들
 그 사이를 지나다 보면
 뜨거운 햇살의 여름, 산토리니
 집 모양과 비슷한 창문

Like one could feel the passage of time through white buildings, tall trees were standing among white buildings. Walking in between these buildings, feeling the hot summer sun, and windows look similar to houses.



전주와 닮다 | 종이, 석채, 콜라주 | 91 x 117cm | 2019
 Resembling Jeonju | paper, pigment, collage | 91 x 117cm | 2019



부자카페 | 종이, 석채, 콜라주 | 73 x 90cm | 2019
 Cafe Bar Buza | paper, pigment, collage | 73 x 90cm | 2019

2016년 8월, 주황색으로 물든 지붕이 가득한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산자락 끝에 성곽으로 둘러싸인 주황색의 지붕이 인상적이다.
 한편으로 한국의 전주마을 그 모습과도 흡사하다.
 전주마을도 주황빛으로 물들어있고 그 모습이 비슷하다.

Dubrovnik, Croatia, with its orange roofs, in August 2016

Orange roofs surrounded by a castle at the end of the mountains
 is similar to Jeonju village in Korea.
 Jeonju village has an orange color as a theme which I think is
 similar.

어느 순간 작은 돌구멍으로 들어가 보니 휴식공간 '부자카페'가 펼쳐진다.
 그곳은 파라다이스처럼 여유로운 공간에서
 썬텐을 하면서 맥주를마시는,
 양산을 들고 있는 그런이미지가 펼쳐져있다.

One moment I looked into a small hole of a stone, and there was
 a Cafe Bar Buza.
 It's like a paradise where people have sunbath having a glass of
 beer, the image of porcelain skin holding a sun umbrella.



여행자 | 종이, 석채, 콜라주 | 90 x 73cm | 2019
Traveler | paper, pigment, collage | 90 x 73cm | 2019

성곽을 거닐다 보며 바다로 다이빙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돌들이 웅기종이 모여있는 아이보리색으로 이루어진 울퉁불퉁한 돌길을 걷다 보면
바람이 불어 더워 보이진 않지만 돌에서 나오는 연기로 땀 범벅이 된 모습,
그 모습을 남기고자 열심히 셔터를 누른다.

Walking along with the castle, the sea is full of people who enjoy diving.
Strolling on the path surrounded by round ivory stones will make you
sweat from the heat they contain, even though it doesn't seem like it
because it is windy.
I capture these moments to remember.



프라하의 연인 | 종이, 석채, 콜라주 | 117 x 91cm | 2019
Lovers in Prague | paper, pigment, collage | 117 x 91cm | 2019

2019년 3월,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밤이 아름다운 체코, 프라하

다른 수단으로 사랑을 표현하듯
사랑하는 연인들이 쇠 덩어리에 자물쇠를 채우고 난 뒤
아쉬운 마음에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진을 찍어 여러 장 남기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리
속에 잊혀지지 않을 추억이다.

Prague, Czech Republic, where I arrived at night after 13 hours
of flight.

Expressing love in a different means,
a couple put a padlock on a spot
and could not leave the place easily.
And they took pictures to remember that moment.
It was like a scene in a movie.
That is a memory that would not fade away easily.



해와 달의 카렐교 | 종이, 석채, 골라주 | 2019
Charles Bridge of the Sun and Moon | paper, pigment collage | 2019

그 곳을 왔다 갔다
매번 다닐 때마다 색다른 모습이 보인다.
밤에 걸으면 불빛들이
낮에 걸으면 노점들이
나의 눈을 행복하게 한다.

I went there.
Every time I go, it has a different look.
In the nighttime, beautiful city lights,
and in the daytime, pretty shops,
they make my eyes happy.



감천! 그날, 두 번째 | 종이, 석채, 골라주 | 130x97cm | 2019
Gamcheon! That day, the second | paper, pigment, collage | 130x97cm | 2019

2019년 12월, 알록달록한 집을 찾아 언덕을 힘들게 올라와 앉았던 부산, 감천문화마을

언덕을 오르다 어느 순간 펼쳐진 벽화
입구를 따라 걷다 보면 골목 안에 있는
13번지 감천 달빛 도넛츠,
영국의 커피 브런치 the plate,
다양한 소품이 존재 할 것 같은 감천문화역,
그 길을 따라 걸으면 저 멀리 보이는 각기 다른 선과 모양의 집들.

In December 2019 at Gamcheon Culture Village in Busan
- Although it was challenging to go up the hills to look for colorful houses, it was very worth it.

A mural greets you at one point if you go up along the hills.
You will also encounter the Moonlight Donuts at number 13,
the plate is an English style of coffee brunch cafe,
Gamcheon Culture station is full of interesting items.
If you continue walking on that path, you will find houses in different shapes and colors.

그곳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듯
 빨랫대에 무심하게 매달아 놓은 듯한 집계와 빨랫감,
 따스한 햇살이 잘 들어 올 것 같은 테라스,
 이러한 곳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공간
 다른 이에게는 그 모습이 신기롭고 매력적인 볼거리가 된다.

You can feel people's daily lives
 through casual pegs and laundry outside
 and sunlit terraces.
 This is a space where people live their daily lives.
 But for some people, it's a wonderful and charming travel site.





파도, 벚꽃이 만개한 감천 | 종이, 석채, 콜라주 | 57 x 148cm-3개 | 2020
 Gamcheon, The Waves of Ocean and Cherry Blossoms | Paper, pigment, collage | 57 x 148cm-3 pieces | 2020

찰랑이는 파도소리와 벚꽃이 만개한 감천
 위에서 바라보거나
 옆에서 바라보거나
 아래에서 바라보거나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을 든다.

Gamcheon is full of the sound of ocean waves and cherry blossoms.
 Looking from above,
 Looking from the sideways,
 or from the bottom,
 Gamcheon village provides the samebut different vibes.



2019년 4월, 완도에서 배를 타고 내리니 금빛 그리고 노란빛인 유채꽃, 청산도

여러여리한 신부처럼 부끄러워하듯 노란빛으로 만개한 유채꽃
빛을 받을 때마다
다른 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작지만 작지 않은 듯한 청산도
구석구석이 볼만한 구경거리가 가득한 청산도

April 2019, I took a boat from Wando arrived at Cheongsando
and encountered with a golden of rapeseed.

Rapeseed looks like a newlywed bride with innocent yellow.
It has different colors under a different light.
Cheongsando is small but not so small.
So many different sights to see at every corner of the island.

청산도, 유채꽃 필 무렵 | 종이, 석채, 콜라주 | 80 x 100cm | 2019
Cheongsando, When Rapeseed Bloom | paper, pigment, collage | 80 x 100cm | 2019



청산도, 유채꽃 필 무렵, 두 번째 | 종이, 흙, 석재, 금박 | 33x24cm-3개 | 2020
Cheongsando, When Rapeseed Bloom, The Second | paper, clay, pigment, gold leaf | 33 x 24cm-3 pieces | 2020





일출, 성산일출봉 | 종이, 석재, 금박 | 38 x 45cm | 2019

Sunrise, Seongsan Ilchulbong | paper, pigment, gold leaf | 38 x 45cm | 2019



구름 가득한 성산일출봉 | 종이, 석재 | 130 x 162cm | 2020

Cloud-filled Seongsan Ilchulbong | paper, pigment | 130 x 162cm | 2020

2019년 8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는 푸른 제주도

초록빛을 따라 가면 오르고 내려 갈수 있는 계단이 있다.
계단이 힘들게 보이는 성산일출봉
오르다 뒤를 돌아보면 그리고 내려가다 눈앞을 바라보면
서귀포시가 한눈에 보인다.
푸른빛 바다, 작게 보이는 건물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보인다.
자유롭게 구멍이 생긴 현무암,
철썩거리는 파도,
그 주변을 걸으면 답답했던 가슴을 땥 뚫어 준다.

In August 2019, I arrived in the blue Jeju Island after flight from Gimpo Airport.

You might find to go up and down the stairs
if you continue to go along the greens.
If you look back at some point, and if you look down on the down-
hill, you will be able to see the whole city of Seogwipo.
Images of buildings and blue ocean of Jeju
is a stunning landscape rare to see anywhere in the world.
Basalt stones with random holes,
the sound of ocean waves,
and the green field will wash away any hint of concerns in your
mind.



오르다 카페, 성산 | 종이, 석채, 박 | 38 x 45cm | 2020

Orda Cafe, Seongsan | paper, pigment, gold leaf | 38 x 45cm | 2020



길 따라 제주도 | 종이, 석채, 박 | 7개 | 2020
Jeju Island Along The Road | paper, pigment, leaf | 7 pieces | 2020

성산일출봉 아래 길을 따라 마주친 마을을 바라본다.
 그 곳에 내가 입고 싶은 빨래가 걸려있고
 바람에 자유로이 흔들리는 뾰족뾰족한 야자수가 보인다.

Walking along the path down to Seongsan Ilchulbong,
 I encountered laundries I would like to try out
 and pointy of palm trees, swaying freely in the wind.



길 따라 제주도 | 부분, 41 X 32cm
Jeju Island Along The Road | a parts, 41 X 32cm



길 따라 제주도 | 부분, 41 X 32cm
Jeju Island Along The Road | a parts, 41 X 32cm



길 따라 제주도 | 부분, 41 X 32cm
Jeju Island Along The Road | a parts, 41 X 32cm



길 따라 제주도 | 부분, 46 X 38cm
Jeju Island Along The Road | a parts, 46 X 38cm



길 따라 제주도 | 부분, 46 X 38cm
Jeju Island Along The Road | a parts, 46 X 38cm



길 따라 제주도 | 부분, 24 X 33cm
Jeju Island Along The Road | a parts, 24 X 3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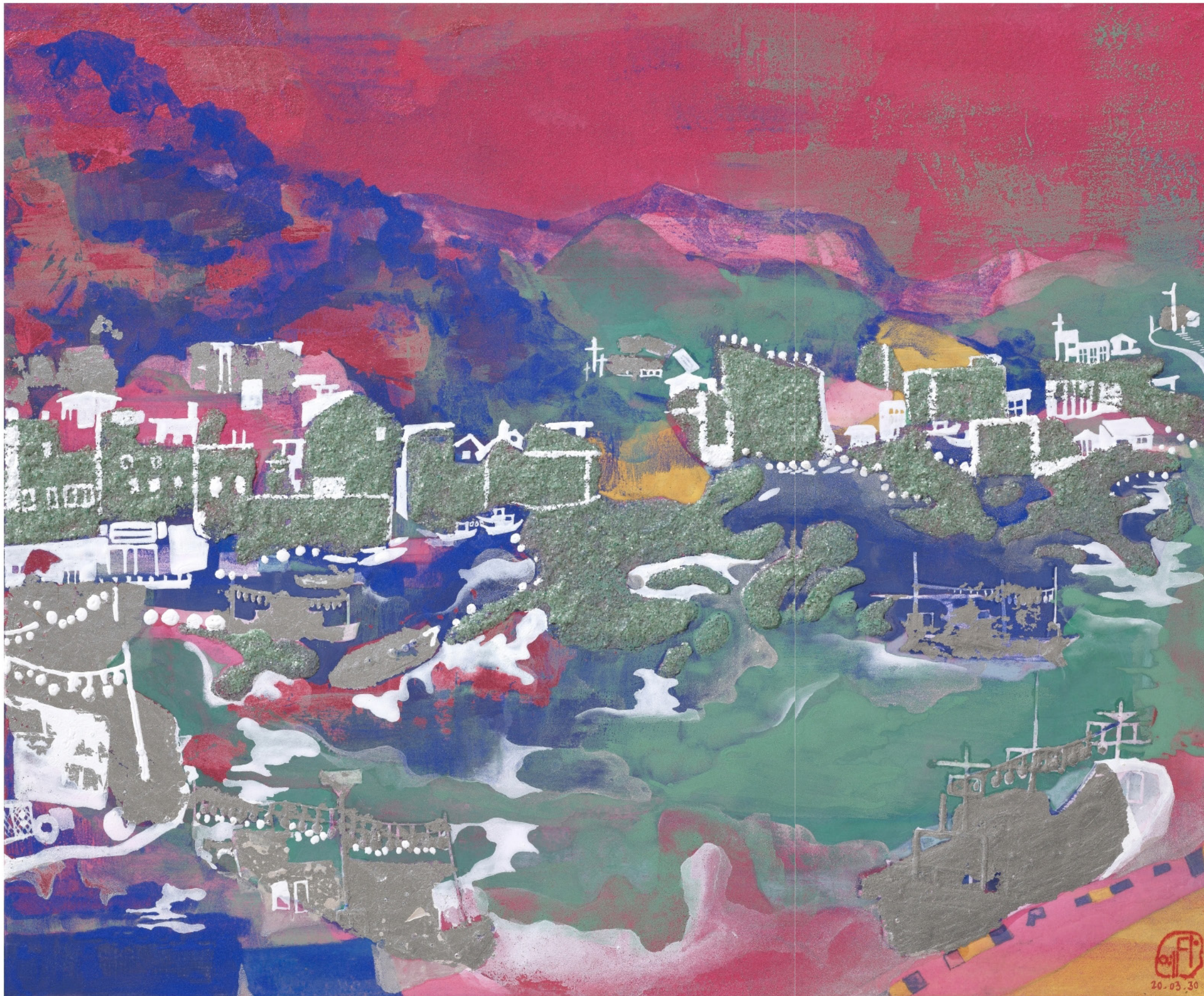


길 따라 제주도 | 부분, 46 X 38cm
Jeju Island Along The Road | a parts, 46 X 38cm



카페에서 커피한잔을 마시고
 올레길 따라 펼쳐져 있는 석양 따라
 어느새 핑크, 노랑, 주황으로 물든 제주도
 저 멀리 용기종이 노을을 즐기는 카페
 석양을 바라보면서 서핑보트를 즐기는 그들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눈에 열심히 담아보았다.

After I drank a cup of coffee at a cafe,
 walking the Olle trail to lead me to the sunset.
 Jeju island was colored in pink, yellow, and orange.
 The cafe seemed to be enjoying the sunset at distance.
 Some people were enjoying surfing in the sunset.
 I tried to contain that landscape because it will never come back.



배 사이 저동항, 울릉도 | 종이, 석채, 박 | 38 x 45cm | 2020

Jeodonghang Port In Between boats, Ulleungdo | paper, pigment, gold leaf | 38 x 45cm | 2020

2019년 9월 아침 일찍 KTX를 타고 예쁜 카페가 가득한 강릉에서
여객선을 타고 도착한 울릉도

멀미 하는 소리와 함께 배를 타고 저동항에 내리면
방금 전에 멀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바다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듯이
푸른빛 바다에서 놀고 있는 흰색 오징어잡이 배들이 시시각각
줄에 매달려 있다.

In September 2019, arrived at Ulleungdo by ferry from
Gangneung where I got by KTX and is full of pretty cafes

If you arrive at Jeodonghang Port
with the roaring sound of a ferry,
you will encounter instant freedom of space
that wash away the seasick you had a minute ago
via squid fishing boats aligned with each other on the blue
ocean.

저동항처럼 큰 항구인 도동항
 손님을 맞이하는 건지, 데려다 준 건지 알 수 없는 여객선이 보인다.
 그곳의 이미지는
 오밀조밀 떨어지면 안 되는 끈끈한 가족의 애처럼
 위로 긴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Dodonghang Port is as big as Jeodonghang Port.
 A ferry ship is spotted but whether it is bringing or taking people is unknown.
 The image of the place reminds me of the bond of a family as if they shouldn't be separated.
 They shape a lengthy image above.





출렁이는 바다, 울릉도 | 종이, 석채 | 38x45cm | 2020
 Ulleungdo Waves | paper, pigment | 38 x 45cm | 2020

울릉도의 해변 산책길을 따라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면서 보여지는
 물속, 물살, 물결, 돌, 구름의 형상은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진경산수이다.

The shape of underwater, current, waves, stones, and clouds,
 spotted along the beach trail of Ulleungdo
 which goes up and down:
 the outstanding and indescribable landscape.



유람선, 바라본 울릉도 단면 | 종이, 석채, 동박 | 97 x 130cm-2개 | 2020
Ulleungdo From Cruise Ship | Paper, pigment, copper leaf | 97 x 130cm-2 pieces | 2020



도동항에서 출발하는 이층으로 되어있는 유람선
 열심히 날갯짓을 하며 새우깡을 달라고 따라오는 갈매기
 그러면서 울릉도의 단면이
 성격을 대변하듯
 부드럽거나 거칠게 생겼다.
 저동항, 등대를 지나
 관음도를 이어주는 다리를 지나
 아기자기한 마을을 지나
 다시 도동항으로 돌아왔다.

A two-story cruise ship from Dodonghang Port.
 Seagull follows the ship asking for food.
 The shape of Ulleungdo
 represents its characteristic of the mountains -
 it is gentle yet strict.
 Passing Jeodonghang and lighthouse,
 and the bridge that connects Gwaneumdo,
 passing through a cute village,
 I returned back to Dodonghang Port.



古&今 4 | 비단, 석채 | 77X 60cm | 2017
old & new 4 | silk, pigment | 77 X 60cm | 2017



古&今 5 | 비단, 석채 | 104 X 79cm | 2017
old & new 5 | silk, pigment | 104 X 79cm | 2017



이채(李菜, 1745-1820) 초상화 모사 | 비단, 석채 | 100 X 58cm | 2019
A copy of the Ichae's portait | silk, pigment | 100 X 58cm | 2019